

이재명 '파죽지세' ... 본선 '직행열차' 타나

민주당 대선 지역 순회경선·슈퍼위크 대세 확인 ... 5연속 과반 압승
누적 득표율 51.41% ... 호남경선 앞두고 매직넘버 카운트 다운 시작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반 지지를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차기 대선 티켓 확보에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 전체 선거인단(210만 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4만 명이 참여한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 지지를 얻은 것은 물론 대전·충남, 세종·충북에 이어 대구·경북, 강원지역 경선까지 4연속 과반 압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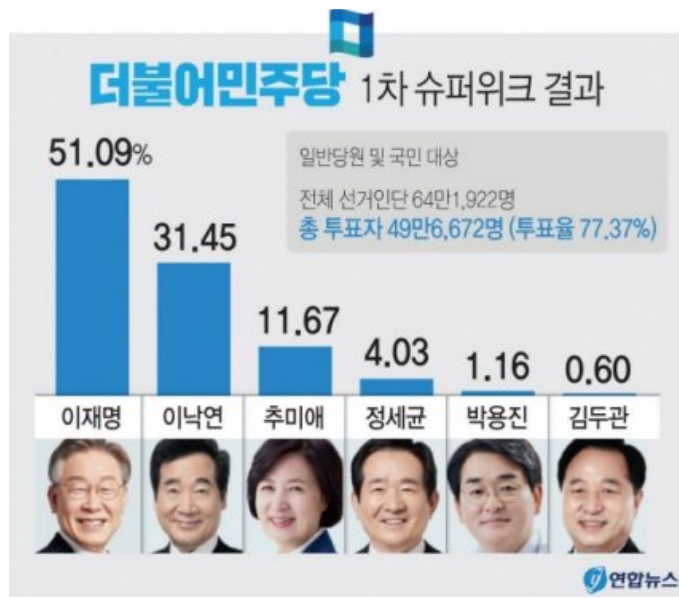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민주당 안팎에서는 결선투표 없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이 지사의 '매직넘버 카운트'가 시작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또 추석 연휴 직후 펼쳐지는 호남지역 순회 경선에서도 '이재명 대세론'은 강고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1차 슈퍼위크에서 이 지사의 과반 지지를 저지,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호남지역 순회 경선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 의회직 사퇴 카드까지 던진 이낙연 전 대표의 승부수는 상당 부분 동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호남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과연 어떠한 경선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주목된다.

12일 민주당의 1차 선거인단(슈퍼위크) 투표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25만3762표를 얻어 51.41%의 과반 지지를 확보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5만6303표로 31.45%의 득표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5만7977표(11.67%)를 득표, 3위에 올랐다.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2만14표·4.03%), 박용진 의원(5742표·1.16%), 김두관 의원(2974표·0.60%)의 순이었다. 1차 선거인단 투표에는 49만6672명이 참여 77.3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또 이날 함께 발표된 강원지역 순회 경선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55.36%(5048표)의 득표율로 4연속 과반 압승을 이뤘다. 그 뒤를 이낙연 전 대표 27%(2462표), 추미애 전 장관 8.61%(785표), 정세균 전 총리 6.39%(583표), 박용진 의원 1.9%(173표), 김두관 의원 0.73%(67표) 순서로 집계됐다. 전날 이뤄진 대구·경북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 지사는 51.12%(5999표)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이 전 대표는 27.89%(3284표)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이 1741표(14.84%)를 득표해 3위에 올랐으며 정 전 총리가 423표(3.60%), 김 의원이 151표(1.29%), 박 의원이 137표(1.17%)로 뒤를 이었다.



12일까지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누적 득표 결과는 이재명 지사가 51.41%(28만5856표)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31.08%(17만2790표)로 20%포인트 차이가 났다. 추미애 전 장관은 11.35%(6만3122표)로 3위를 기록했고, 정세균 전 총리가 4.27%(2만3731표)로 그 뒤를 이었다. 박용진 의원(1.25%, 6963표)과 김두관 의원(0.63%, 3526표)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지사가 경선 초반 판세의 분수령인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확보에 성공하면서 "본선 직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결과 발표 직후 "기대보다 많은 과반의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호남권 경선 전략에 대해 "진심을 다해서 국민께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들을 설명 드리고 거기에 부합한다는 점을 열심히 읊소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례의 순회경선과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모두 승리한 이 지사 진영에서는 추석 직후 열리는 호남지역 순회경선에서 승부에 쐬기를 박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연이은 승리에 자만하기보다 낮은 자세로 민주당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중도 확장 전략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의회직 사퇴 카드 등으로 1차 슈퍼위크에서 반전의 계기 마련



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과반 득표로 1위를 차지한 이재명 후보가 차량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기대했던 이낙연 캠프 진영에서는 이날 득표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지사와의 격차를 소폭 줄였다든 점에 방점을 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심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그것(의회직 사퇴)이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해야 본선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계사구나 짐작한다"며 호남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우회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이제 이 전 대표에게 남은 승부처는 호남지역 순회 경선이다. 하지만, 이 지사의 대세론이 강고해진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호남에서 큰 차이로 역전에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에게 이제 남은 건 25-26일 '호남대전'까지 남은 12일 가량의 총력전'이라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3위 경쟁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11.35%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4.25%에 그친 정세균 전 총리를 물리치고 기세를 올리고 있다. 추 전 장관은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이 이슈 떠오르면서 과거 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것이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바람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1차 슈퍼위크에서 3위 자리를 되찾으려 했던 정 전 총리는 상당한 격차로 뒤 처지면서 호남지역 경선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태풍 '찬투' 내일부터 비 뿌린다

17일 낮 남해안으로 상륙

제 14호 태풍 '찬투'가 오는 14일부터 광주와 전남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찬투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약 3일간 정체하다가 동쪽으로 이동, 17일 낮 남해안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찬투의 최대풍속은 초속 50m로 강도는 '매우 강함' 수준이지만 중국을 거쳐 남해안으로

이동하면서 최대풍속 초속 27m의 중급 태풍으로 약화될 전망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14일부터 찬투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5~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이 가까워지는 15일부터는 우리나라에 건조한 공기와 태풍 북동쪽에서 고온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대가 발달,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12일 밤부터 서해남부남쪽먼바다

와 13일 새벽부터 서해남북쪽먼바다와 남해 서부서쪽먼바다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5m까지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전남 코로나 산발적 감염 잇따라

남구 초·중학교 검사 전원 음성

광주·전남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5명, 외국인 고용사업장 전수 검사 관련 1명, 광산구 외국인 집단 감염 관련 1명, 물류센터 관련 1명, 기존 확진자 관련 2명 등 10명이 신규 확진됐다. 외국인 사업장 전수 검사 관련 확진 누계는 77명, 광산구 외국인 집단 감염 관련 확진 누계는 175명으로 각각 늘었다. 확

진자가 발생한 남구 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수 검사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초등학교 학생·교직원 870명, 중학교 585명을 검사한 결과 지표환자를 제외한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초등학교 확진자가 나온 반, 중학교 1·3학년울 오는 24일까지 원격 수업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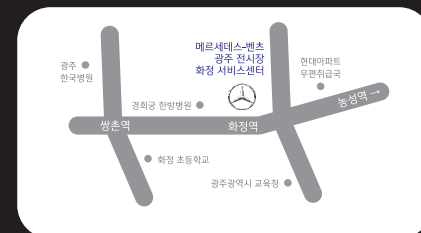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4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835명이 됐다. 주말인 지난 11일에는 11명이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9명은 자가 격리자였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Mercedes-AMG GLC & GLC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Mercedes-AMG를 직접 경험 하세요!



신성자동차
Mercedes-AMG GLC 43 4MATIC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1,955kg, 지동9단, 복합연비 8.3km/l, 도심연비 7.5km/l, 고속도연비 9.6km/l), 5단급, 복합CO₂ 배출량 212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기 저항계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